

社說

촛불 혁명의 완성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한 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던가. 이 한 마디를 듣기 위해 얼마나 많은 촛불이 타올랐던가. 조마조마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 한 마디를 들던 바로 그 순간, 온 국민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대한민국에 비로소 봄이 왔다.

2017년 3월 10일. 이날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날로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담담하게 결정문을 낭독했다. 박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21분’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촉박한 추위를 견디며 촛불을 들었던 이들에게 긴 나간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짧지만 길었던 시간, 그것은 반전이 있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이 재판관에게 쏠렸다. 이 재판관은 먼저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아 온 국회 가결 절차가 적법하므로 각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자

유 침해, 세월호 참사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등 세 가지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저기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렇다가 탄핵이 불발되는 것은 아닌지? 국회 소추위원단의 표정도 점점 굳어졌다.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순간은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대한 판단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됐다.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파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은 가만히 소리 나지 않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재판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기 위해 큰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드디어 오전 11시21분. 이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선고와 함께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다.

겨우내 광장에 타오른 촛불은 ‘법치와 민주’를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가 이리도 어려운 것인가.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들 것이다.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모두들 잠 못 드는 밤을 지냈을 것이다. 이 엄중하고 역사적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시인이냐고 책할 사람이 없진 않겠으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 온 우리는 한 송이 국화꽃의 의미를 다시 새기지 않을 수 없다.

다시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새 장을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었다. 현재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치가 살아 있는 민주국가임을 웅변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지 않음을 엄중히 선언했다.

우리 국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촛불 혁명을 이루었다.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명예로운 시민혁명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정의의 승리이며,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 했다.

구체제 청산 적폐 일소해야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촛불 집회로 표출된 광장의 민심이 무너진 헌정 질서의 전면적 재건을 요구한 때 때론 것이다. 현재의 탄핵 결정으로 앞으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 전반을 개조하고 모든 영역에서 적폐를 일소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 및 지도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은 구체제 청산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는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재벌 개혁, 선거제도 개혁, 국정 농단을 방지하고 은폐한 검찰과 정치 개

입을 일삼았던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의 숨한 과제가 쌓여 있다.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 민주화와 복지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반목과 대결을 접고 차분히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이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 선고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초시하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말을 되새겨야 한다.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나라 안팎의 심각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계산을 떠나 조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5월 ‘장미 대선’에서 뽑힌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 개혁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촛불혁명을 진정한 ‘시민혁명’으로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월요광장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

(喜怒哀樂)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희’(喜)와 ‘낙’(樂)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위 연구에 의하면 기쁨은 쾌감 점수가 10점 만점 중에 5.94이고, 즐거움은 5.89로 소개되어 있다. 기쁨이 즐거움보다 더 강한 쾌감인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기에 쾌감의 강도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의 눈물 흘리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이산가족이 서로 부둥켜안고 우는 모습,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흘리는 눈물, 출산 후 아이를 안은 엄마의 뺨에 흐르는 눈물, 탄핵이 발표되고 난 뒤 만세를 부르며 눈물 흘리는 시민들의 모습! 이 눈물을 우리는 ‘기쁨의 눈물’이라고 하지 ‘즐거움의 눈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즐거움 즉 ‘낙’(樂)은 감각적 차원의 쾌감이다. 맛있는 것을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할 때 우리는 감각적인 쾌감을 느낀다. 이 쾌감은 고통이나 불편을 동반하지 않은 순수한 쾌감이다. 그에 비해 기쁨 즉 ‘희’(喜)는 다르다. 기쁨은 고통·불편이 동반된 쾌감이며 정신적인 것이다.

추운 바람을 맞아가며 겨울 산의 정상에 올라섰거나, 이별의 고통을 겪고 난 후

재회했거나, 밤잠을 줄여 가며 공부하거나 연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즐거움은 손쉽게 느낄 수 있지만 그 쾌감이 짧게 지속된다. 그에 비해 고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기쁨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쾌감은 오래 지속된다.

이 두 감정의 차이에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있다. 동물의 감정은 단순하다. 감정이 단순하기에 행동도 단순하다. 우리에게 쫓고 불쾌감을 피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복잡하다. 두 상반된 감정을 만나들며 더 큰 쾌감을 만들어 낸다.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것이 인간인 것이다.

맛도 그렇다. 동물들은 쓰고 매운 맛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늘이나 고추를 좋아하는 동물을 보았는가! ‘감탄고토’(甘苳) 즉, 달콤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것은 동물적인 반응이다.

인간의 맛은 놀랍다. 단지 쓰고 매운 맛을 잘 견뎌 낸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단맛과 짠맛에 쓰고 맵고 신맛을 섞어 내어 더욱 풍부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 내고 즐긴다. 쾌와 불쾌의 두 세계가 이분법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두 세계

를 섞어 내어 더 깊은 쾌감을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행복하다는 뜻의 한자 ‘행’(幸)을 보면 때를 ‘신’(辛)과 한 ‘일’(一) 자로 되어 있다. 삶의 고통 속에 어떤 희망이나 기쁨 하나를 얻으면 그것이 곧 행복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고 인간이기에 ‘기쁨’만을 느껴야 한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인간 이전에 동물이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인간으로서 느껴야 할 기쁨이 사라질 때이다. 기쁨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즐거움이 커진다. 아무런 불편함이나 고통 없이 그저 기분 좋기를 바라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즐거움을 넘어 중독이 되고 부패가 된다.

봄이 왔다. 봄은 기쁨이다. 즐거움이 아니다. 땅을 헤집고 나온 새싹의 고통 어린 몸부림, 매서운 추위를 이겨 낸 생명의 아우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년의 봄은 더욱 큰 기쁨이다. 찬연하다.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 기쁨을 추구하는 민중이 이겨 낸 승리의 봄이기 때문이다. 얼짜안자. 기쁨의 이 봄!

Advertisement for '무등鼓' (Mudeunggu) featuring a drum icon and text about a performance or event. It includes details about ticket prices,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organizing committee.

기 고

‘달빛’ 염원을 담은 ‘광주~대구 내륙철도’



정민곤 광주시 교통건설국장

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 대구시는 전시회 공동 주최, 후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처럼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2009년부터 대구의 옛 지명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달빛동맹을 시작한 이후, 국민대통합과 민주정신 함양 등 다양한 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2015년 5월 18일에는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광주·대구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간중심의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교류에도 불구하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기간교통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간 교통망은 경부고속도로 필두로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과 함께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1980년대 들어 국토균형 개발정책으로 전국의 간선도로망과 철도망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남북축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동서축의 교통 인프라 부족은 동서간 통행을 제한하였고 수요 부족 등의 경제논리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개발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다행히 2015년 12월 광주~대구간의 유일한 직통 접근로였던 88올림픽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광주~대구고속도로’라는 새이름으로 4차로로 확장되었다. 확장 개통된 이후 교통량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동서화합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만으로는 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기 어렵고 산업물동량 처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영·호남의 진정한 상생과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잇고 철도를 뚫어 동서간 통행로를 다변화하고 물리적 거리를 좁혀 나가야 한다

는 것이다.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확장 개통과 더불어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광주~대구 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이번엔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이미 중앙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년)에서 추가사업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민선6기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선정되면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지난해 6월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년)에서도 구체적 추진 계획이 확정되지 못한 채 추가검토 대상 사업으로 남았다.

이 노선은 6개 광역 시·도의 7개시, 10개군을 경유하여 영향권에 219만가구, 577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철도 네트워크 확대 및 수송 효율성 제고,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의 3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도 영·호남을 잇는 대중매이 마련되어야만 영호남은 명실상부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된다는데 공감하고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이제는 철도시대이다. 철도는 도로에 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또한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은 단순히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꾸고 해당 주민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다. 또한 국토개발과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지역과 이로 인한 불균형을 극복하는 국민통합의 ‘화해의 통로’이자 ‘상생과 화합의 길’이 될 수 있다.

광주, 대구는 물론 영호남의 꿈과 희망이 될 ‘광주~대구 내륙철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 추진협의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고 대선공약에도 반영하는 등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광주·대구 모든 시민의 염원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물리적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었던 광주와 대구가 내륙철도를 계기로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확신한다.

똥똥해지는 청소년, 비만 대책 서둘러야

초·중·고에 다니는 학생 100명 가운데 16명이 비만이라고 한다. 우리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생들의 비만율이 16.5%로, 전년 대비 0.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비만이 무서운 것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만성질환과 성인병 심지어 우울증 등 정신병까지 유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비만증가의 원인은 무엇일까. 패스트푸드 등 서구화된 식습관과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의 학습시간 부담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부 자료에도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의 섭취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시간 때문에 권장운동량(주 3일 이상 격렬한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소년 비만을 줄이려면 비만되지성공사례로 알려진 미국 ‘레츠무브’처럼 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비만퇴치 캠페인을 펼쳐 전 국민이 비만의 위험성을 공감하게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로 건강한 식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인스턴트식품이나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학습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 운동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늘려나가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도 청소년 비만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만 1조3638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와 학교, 가정의 힘을 모아 청소년 비만을 줄일 수 있는 해법과 실천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김근중·농협구미교육원 교수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and circulation. It includes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with an image of a newspaper and a coffee cup.